

美, 한·중 '北 제재 이행' 공개 압박

“남북관계 재평가 약속 지켜라”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재조정 요구 힐 차관보 “北 선박 검색 이행 주목할 것”

미국은 17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의 이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라이스 장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관계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재조정하느냐의 “많은 부분이 북한의 행동과 관계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재평가 결과를 보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들 사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규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SI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이 나서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화물검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9일의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의 말과 관련, “중국이 입장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왕 대사의 실언이었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정도로 강하게 나섰다.

라이스 장관이 동북아 순방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밝힌 입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고위층이 한 공개발언 중 가장 부정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속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

에 대한 논쟁 주문에 외교적 수사 없이 곧바로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들 사업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가 된다는 부시 행정부 불만의 표출이자 이번 기회에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재평가 결과를 보겠다고 말한 것은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시 남북관계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환기시키며 약속을 지키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날 방한한 힐 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유엔 결의 1718호의 검색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PSI는 (유엔 결의 1718호의 검색 부분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물질 수출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북한이 무모한 행동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입장과 관련, 번스 차관은 왕 대사가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중국은 화물검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역시 외교적 수사없이 “이상한 성명” “안보리 결의에 찬성 투표해 놓고 결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는 등으로 정면 타박했다.

그는 CBS와 인터뷰에선 라이스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후진타오(胡锦涛) 주석 등 지도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거나 “중국이 육상 국경에서 결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를 오늘 아침 봤다”는 등의 말로 왕 대사의 말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천영우(가운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힐(오른쪽) 미 국무부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차관 등 3국 6차회담 수석대표가 17일 외교부청사에서 북핵 관련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美압박 대응 어떻게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PSI 참여 등에 대해 극히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미 갈등이 다시 부상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결의안이 채택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효과보다 부작용 크다”

美, PSI 동참 요구에 집중할 듯

된 15일 “이번 결의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 1695호 이후 국내외에서 계속돼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검토 압박에 대해 지속 방침을 천

명한 우리 정부의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가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도 먹혀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연 2천만달러에도 못미칠 정도로 크지 않고 또 이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도 증명된 바가 없는 반면 두 사업의 중단이 남한 사회에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남북경협보다는 PSI 참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보다 핵확산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 보다 강경해진 국내외 여론과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워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합뉴스

2차 핵실험 19일? 내달 7일?

강행맨 라이스 방한·美 중간선거 전후 시점 유력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일찌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도 17일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이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이 같은 정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은 1차 실험을 강행한 뒤인 지난 11일 나온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경고함으로써 이미 예견돼 왔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부터 ‘에.디(타도제국주의동맹 : 김일성이 1926년 결성했다는 혁명조직)’ 결성 80주년인 17일 전후, 내달 7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시점 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일단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안이 채택된 지 만 이틀이 넘도록 공식반응이나 특별한 행동 없이 조용하다. 또 자신들이 중시하고 있는 ‘에.디’ 결성 80주년 기념일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북한의 ‘행동’이 나올 시기가 됐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로 예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을 전후한 시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1차 실험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한 당일에 맞춰 실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이스 장관도 오고, 미국이 저렇게 강경한데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반면 당분간 2차 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2차 실험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발력 1kt미만”...부분성공 시사 美 핵실험 공식 확인

미국은 16일 북한의 지하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실은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

은 1kt 미만(1kt는 TNT 1천톤의 폭발력을 의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5~15kt의 폭발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소형 핵 폭발이었거나 부분적으로 폭발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진퇴양난’ 中 “암박이나 설득이나”

北 핵실험으로 새 시련...라이스 방중 대응 촉각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 외교가 새로운 시련을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시선이 몹시 부담스럽게 됐다.

북한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한 동북아의 안보구도로 볼 때 중국이 결코 북한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감싸고 돌 수도 없다. 중국의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가의 시각은 지금 상황을 ‘진퇴양난’으로 보면서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번 사태를 적절히 해결하기만 한다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중국을 북한의 핵실험을 고립의 산물로 해석한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는 일본, 한국, 대만에 둘러싸인 채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직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 상황에서 중국에 시급한 것은 압박과 대화의 중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베이징(北京) 방문에서 어떤 대응을 통해 자국에 타진 시련을 호기로 전환할 것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 1회 광주하우징엑스포

2006. 10. 19(수) ~ 22(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10:00 ~ 18:00

최신 건축자재와 홈인테리어 제품을
광주하우징엑스포에서 확인하십시오!

1. 건축 / 시공업체

- 신영건설
- 대우건설
- 한양건설
- 신원건설
- 신원건설
- 신원건설

2. 인테리어 업체

- 신원건설
- 신원건설
- 신원건설
- 신원건설
- 신원건설
- 신원건설